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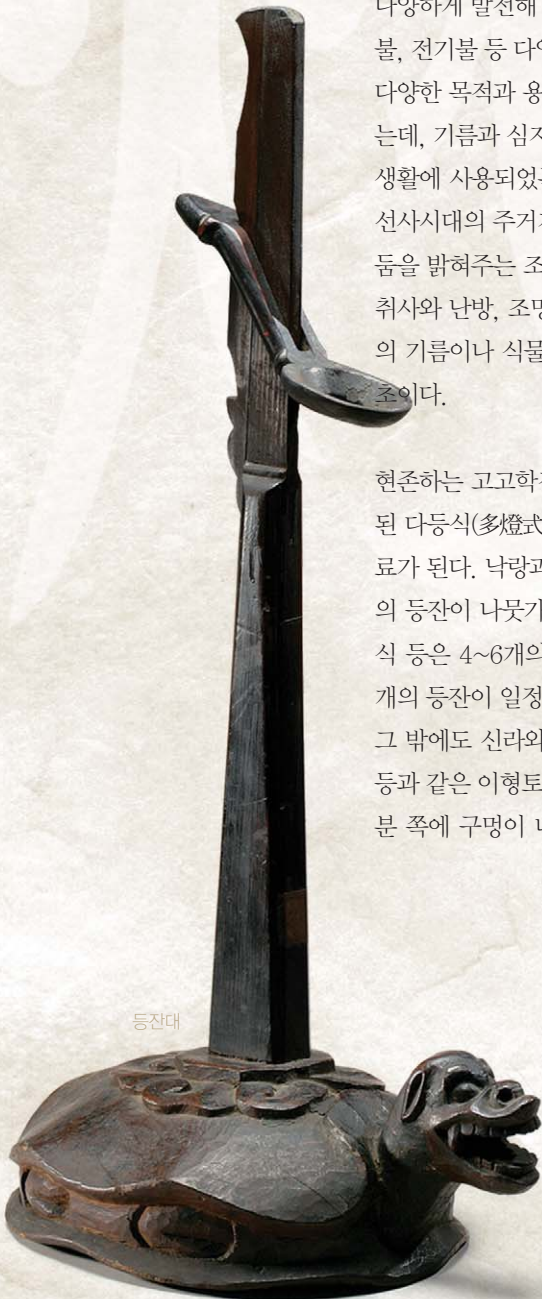
인류에게 문명을 가져다 준 가장 중요한 계기는 불의 사용이다. 인류가 불을 자유롭게 피우고 사용하면서부터 문명은 급속하게 발전하기 시작했다.

불을 이용하여 어둠을 밝히게 되면서 인간들의 활동은 어두운 밤에도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고, 그만큼 일상생활의 폭이 확대되었다. 불을 사용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불은 인간들에게 다양한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예컨대, 어둠을 밝히는 조명으로서의 불, 추위를 막아주는 난방으로서의 불 그리고 흙을 빚어 음식물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굽고, 쇠붙이를 녹여 여러 가지 기물(器物)을 만드는 불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다양하게 발전해 왔다. 우리의 역사에서 조명으로서의 불은 관솔불, 등잔불, 햇불, 촛불, 전기불 등 다양하게 들 수 있다.

다양한 목적과 용도에 맞게 만들어진 등화구는 보통 등잔, 기름, 심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기름과 심지가 등화구에 가장 중요한 구성요소이다. 등화구가 언제부터 우리의 생활에 사용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고고학적 발굴 자료를 통해서 볼 때, 선사시대의 주거지에서 볼 수 있는 노(爐)가 처음에는 취사와 난방의 기능과 함께 어둠을 밝혀주는 조명으로서의 역할을 겸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중앙의 노(爐)는 취사와 난방, 조명으로서 역할이 점차 분화되어 갔으며, 그 가운데 조명 방식은 동물의 기름이나 식물 기름을 채취하여 석기나 토기에 담아 불을 밝힌 것이 등화구의 시조이다.

현존하는 고고학적 유물로서 가장 오래된 등화구로는 신라 금령총(金鈴塚)에서 출토된 다등식(多燈式) 등잔이 있는데, 이것은 당시의 등화구 형태를 살펴보면 좋은 자료가 된다. 낙랑과 한대(漢代)의 출토품인 다지(多支) 등이나 칠지(七支) 등은 여러 개의 등잔이 나뉘는 형태 위에 얹혀져 각각 독립된 형태를 하고 있지만 신라의 다등식 등은 4~6개의 등잔이 하나의 등근 원통관에 연결되어 있어 기름을 부으면 여러 개의 등잔이 일정한 유량을 유지하면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그 밖에도 신라와 가야지방의 고분에서는 오리형 토기, 기마형 토기, 바퀴장식 토기 등과 같은 이형토기(異形土器)들이 많이 출토되었다. 이러한 이형토기는 모두 꼬리부분 쪽에 구멍이 나있어 이것이 등잔으로 쓰였다면 여기에 심지를 내어 불을 붙였을



등잔대

불빛으로 어둠을 밝히는 등화구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삼국시대의 토기 등잔에서 종지형 등잔을 찾아볼 수 있는데, 이는 19세기 말에 호형 등잔이 만들어질 때까지 이 등잔이 오랜 기간 동안 등잔의 기본 형태로서 지속적으로 사용되어 왔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등화구는 밤에 불을 밝히는 기구일 뿐만 아니라 각종 의식이나 의례 때에도 분위기를 엄숙하게 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예컨대, 석가탄신일의 연등행사와 같은 종교의식이나 혼례 또는 상가의 대문에 '상중(喪中)'이라는 글을 써서 내거는 발등거리 등은 오늘날에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전통 등화구이다.



벽걸이 등잔

등화구의 형태와 종류

이처럼 등화구는 시대와 용도에 따라 다양하게 발전되어 왔지만, 가장 기본적인 형태는 등(燈)과 초(燭)였다. 그리고 등잔은 좁게는 등불을 켜는 종지만을 가리키지만, 넓게는 등화구 전체를 나타내기도 한다. 등불을 켜는 그릇으로서의 등잔은 재질에 따라 토기, 도기, 자기, 옥석, 철, 놋쇠 등이 있고, 형태로는 종지형, 탕기형(湯器形), 호형(壺形) 등이 있다. 우리나라에 근대 등화구인 램프(Lamp)와 석유가 도입된 것은 1880년경(고종 17년)에 외국을 왕래하는 관리를 통해서 들어왔으며, 황현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서는 등화구의 연료로 석유와 성냥을 사용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이 시기에 일본으로부터 석유가 수입되면서 심지꽃이를 따로 붙인 사기 등잔(호롱)이 대량으로 보급되었다.

우리의 전통적인 등잔은 심지를 그릇 바깥쪽에 놓고 불을 켜거나 심지를 그릇의 중간에 오게 하여 불을 켜지만 석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등잔은 그렇게 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불이 기름에 닿으면 바로 연소가 되기 때문에 뚜껑을 겸한 심지꽃이가 따로 붙어야만 하였다. 받침과 기둥이 하나의 몸체로 된 백자 서등(書燈)과 유기 등잔, 일제 시대에 대량 보급된 손잡이가 달린 호형 등잔(호롱)은 모두 석유 사용과 함께 나타난 것들이다. 종지형 등잔은 석유를 사용하기 이전에 들기름, 콩기름, 아주까리, 동백기름 등의 식물성 기름과 고래, 정어리 등의 생선기름 그리고 돼지기름과 같은 동물성

기름을 연료로 사용했다. 종지형 등잔의 심지는 보통 솜, 한지, 삼실 등을 꼬아서 만들었다.

등잔불의 밝기를 높이려면 심지를 두 개 또는 그 이상으로 하여 불을 켜면 되는데, 이것을 쌍심지라 한다. 이궁익의 『연려실기술』(燃藜室記述)에 “명아주실로 심지를 만들어 불을 밝히고 역사를 썼다”는 기록을 통해서 등잔 심지의 재료를 알 수 있다. 전통 등화구는 사용공간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등이 사용되었고, 이러한 등화구는 민화나 풍속화에서도 잘 묘사되어 있다. 그 좋은 예로서 우리는 조선시대 풍속화인 신윤복의 ‘월하정인(月下情人)’, ‘야금모행(夜禁冒行)’에서도 밤길을 밝히는 등화구를 찾아볼 수 있다.

야금모행 (신윤복)





촛대

방안에서 사용하는 등화구

등가와 등경은 받침대를 만들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등경은 등잔을 적당한 높이에 없도록 한 등대(燈臺)로서 등잔걸이라고도 한다. 등경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는 넓은 밑받침에 3~4개의 걸이용 단이 있는 기둥이 세워져 필요한 높이의 단에 등잔걸이를 걸치고, 그 위에 등잔을 얹어 사용하도록 하였다.

등잔 밑에는 다양한 형태의 기름받이를 달아 심지에서 떨어지는 기름찌꺼기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신분의 구분 없이 가장 많이 사용된 실내 등화구이다. 등경은 청동, 철, 놋쇠, 나무를 재료로 하였으며, 그중 나무로 만든 등경이 가장 많고 형태도 다양하다.

특히 나무 등경은 각 가정에서 필요에 따라 자가 제작해서 사용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매우 재미있게 표현되어 있다. 나무 등경에 비해 유기 등경은 주

로 상류층에서 많이 쓴 등화구이다.

기둥의 위쪽은 대개 고사리 말림형으로 되어 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고려시대부터 조선 후기까지 계속 이어졌다. 걸이용 단이 없이 상반부에 등잔을 얹도록 만든 것을 등잔받침, 등가(燈架)라고 하는데, 이것 역시 다양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나무 등가는 대개 종지형 등잔보다 호형 등잔을 얹어서 많이 사용하였다. 장식은 주로 받침대에 행해져서 대매듭, 줄 구슬, 기하학적 돌을새김 등 다양한 문양이 새겨진 것이 많다. 밑받침은 재떨이를 겸해서 사용하기도 하고 간혹 연꽃 모양의 새김을 해서 한껏 멋을 낸 것도 있다.

좌등은 주로 상류사회에서 사용된 방안의 조명기구이며, 대부분 나무나 철로 장방형을 만들고 한쪽이나 또는 사방에 여닫이문이 달려 있어서 그 내부에 촛대나 기름등잔을 넣어 사용하였다. 구조는 사면기둥과 천판(天板)으로 되어 있고, 김(紗)이나 한지를 발라 불빛이 은은하게 비치도록 되어 있다.

한 면은 여닫이 문짝으로 만들어 내부에 주석 촛대를 사용하기 편하도록 되어 있다. 천판은 약간의 경사를 주어 환기가 되도록 구멍이 뚫려 있고, 상부에는 들고 다니기 편하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다. 좌등은 간접조명 방식으로 바닥 등이라고도 하며, 실내의 적절한 공간에 놓여져 방 전체를 은은하게 비춰준다. 조선 후기 석유가 수입된 이후부터는 사기로 만든 백자서등(白磁書燈)을 주로 사용하였다.

촛대는 일상생활용과 의례용, 이동용인 수초(手燭)가 있다. 기본 형태는 복발형(覆鉢形, 사발을 얹어놓은 모양)의 받침 위에 죽절형(竹節形), 염주형(念珠形), 장구형의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짧은 초꽂이 축이 달린 받침접시를 두어 초를 안전하게 꽂아서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의식에서 쌍으로 사용하였다. 반면에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촛대는 불후리(火屨)가 달려 있어 여기에 박쥐나 나비, 팔각형, 파초형, 부채꼴 등의 형태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그리고 사용한 후에 촛대를 편리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분해와 조

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초는 집안에서 간단한 용무를 보기 위해 이동할 때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촛대이다. 초는 밀초(蜜燭), 소기름초(牛脂燭), 돼지기름초(豚脂燭) 등을 사용했는데 궁중에서는 용이 조각된 용초와 모란꽃이 장식된 화초 등 화려한 초를 이용했다. 그리고 일반 서민들은 귀한 밀초의 사용을 엄격하게 통제받았으며, 밀초의 사적 매매도 금지되었고 관혼상제(冠婚喪祭) 때에 관청에서 배급받아 사용했다.

바깥에서 사용하는 등화구

제등은 밤길이나 의식에서 주로 사용하며, 제등에는 초롱(燭籠), 등롱(燈籠), 조족등(照足燈), 유제등(鑰匙燈)이 있다. 제등의 형태는 철사, 놋쇠, 나무 등으로 골격을 짜서 맞추고, 표면에 한지나 김(紗)을 씌웠다. 등의 위에는 손잡이를 만들어 이동하기에 편리하도록 하였다.

제등의 내부에 초를 넣은 것은 초롱, 등잔을 넣은 것은 등롱, 청사나 홍사를 씌운 것은 청사초롱이나 홍사초롱이라고 한다. 청사초롱과 홍사초롱은 신분에 따라 구분하기도 하였으며, 주로 혼례나 상례 등에서 의례용으로 사용하였다.

특히 서민들은 홍색에 청색의 긴 단을 댄 청사초롱을 혼례 때 사용했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청사초롱은 결혼을 의미하는 말로 쓰이기도 한다.

조족등



괘등(掛燈)은 주로 부엌에서 사용하는 등으로, 부뚜막의 뒤쪽에 놓고 바닥 등으로 사용하는 것과 벽에 걸어서 사용하는 벽걸이 등잔이 있다. 바닥 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대개 짚그릇으로 만든 집 속에 등잔을 넣어 사용한 것이다. 등잔을 넣고 뺄 수 있도록 짚그릇의 앞을 턴우고 위에는 환기 구멍을 내었다.

등잔의 불은 에워싼 집이 있기 때문에 바람이나 음식을 끓일 때 생기는 김에도 쉽게 꺼지지 않는다. 벽걸이 등잔은 벽에 걸어도 거주장스럽지 않도록 20~30cm 내외로 짧게 만들었고, 조선 후기에는 유기로 양식화된 제품이 다량으로 만들어졌다.

이 등잔은 걸기 편하게 U자 모양을 얹어놓은 듯한 걸쇠를 만들고 가운데에 등잔을 받칠 수 있는 등받이를, 밑쪽에는 기름찌꺼기를 받을 수 있는 기름받이가 만들어져 있다. 그리고 걸쇠의 양쪽에는 새나 나무 모양을 추상화시킨 형태를 평새김으로 장식하였다.



조롱

조족등은 주로 궁중이나 밤에 순찰을 돌 때 사용했던 등화구이며, 조족등이라는 명칭은 발을 비출 수 있도록 만들어진 데에서 유래되었다. 조족등은 제등의 일종으로 형태가 박과 비슷하여 '박등'이나 또는 도적을 잡을 때 사용한다고 '조적등(照賊燈)'이라고도 불렀다.

조족등은 둥근 항아리를 얹어놓은 모양으로 직경은 15~30cm 정도이고, 한쪽에 20cm 내외의 손잡이용 자루가 달려 있으며 반대쪽 밑쪽은 트여 있다.

대나무 가지나 쇠로 부채살처럼 뼈대를 만들고 바닥을 제외한 안쪽에 기름종이를 여러 겹 바른 뒤, 위쪽에는 손잡이용 자루를 붙인다.

그리고 내부에 회전식 철제 초꽃이를 설치하여 등을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하든지 초가 수평을 유지하여 촛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였다.

조족등의 트여 있는 밑 부분으로 불을 비췄다. 조족등은 종이에 기름칠이나 옷칠을 하였기 때문에 비를 맞아도 잘 젖지 않고, 안쪽에 값비싼 초를 꽂아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궁중과 상류 양반계층에서 사용했다.

그리고 산간 지역에서 주로 많이 사용했던 '코쿨(高燭)'이 있다. 이것은 주로 화전민들 사회에서 사용되었으며, 방과 부엌 사이의 한쪽에 만들어져 조명과 난방을 겸하였다.

코쿨은 방안에 설치하는 우리 고유의 등화구로 방바닥에서 30~40cm쯤 되는 높이에 가로 20cm가량의 판석을 붙이고 그 위로 연통을 세운다. 판석 주위에는 사각형의 아궁이를 만들었으며 위에는 연기가 빠질 수 있는 구멍을 뚫었다.

한편 양쪽의 방에서 한 코쿨을 이용하려면 전면이나 또는 뒷면 벽이 T자형으로 만나는 곳에 설치하는데, 불이 두 방에 비치도록 코쿨 양쪽에 아궁이를 붙인다. 밤에는 이곳에 관솔불을 지펴서 등잔불을 대신하여 밤을 밝혔다. 이처럼 코쿨 불은 방안의 온도를 높여서 조명과 난방 역할을 동시에 한 것으로 전통적 주거공간에 맞게 에너지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한 시설이었다. ㉞